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 개최 준비 만전

전북도-조직위원회,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에서 송하진 지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간곡히 요청

“태권도는 2020년까지 올림픽 정식종목이 보장되며, 이후 채택 여부는 2017년도에 결정되는 만큼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의미에 특별함이 있다”

지난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의 말이다.

전북도와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 이연택)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 및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대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회 홍보는 대회조직위원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이 담당 역할을 분담하여 홍보동영상, 대회브리핑, 개최시설리운딩, 시범공연관람 순서로 진행했다.

특히, 시범공연은 태권도원 상징기구인 태권전명인전에 특별 설치된 공연장에서 연출되었는데 디테일이 살아있는 동작과

현란한 공중동작들에 참석자들이 눈을 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송 지사 역시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경쟁국 터키와 접전을 벌였던 유치과정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전국 시도지사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몇 번이나 요청했다.

도와 대회조직위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6월까지 개최회식, 대회홍보, 경기운영, 자원봉사, 선수단 수송, 식사 및 숙박대책, 선수단 및 관광객 편의지원 등 모든 분야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협의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태권도 시범단 등으로 구성된 홍보단 기동 매체홍보, 차량대행 광고, 인터넷, SNS, 블로그 등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기울여 개막식 전까지 대회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공식 엠블럼



전북현대 내일 인천과 K리그 클래식 5라운드 경기

전북현대 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전북은 리그 4라운드까지 2승 2무로 개막 후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만일 인천을 격파할 경우 홈경기 전승 및 선두탈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최근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펼친 전북은 이번경기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 주장 이동국과 김보경, 이재성, 레오나르도의 선발출장을 예고했다.

위 4선수는 두터운 선수진 중에서도 1군이라고 불리는 공격수들이다.

전북의 최강희 감독은 “선수들을 믿고 전북다운 경기를 하겠다”며 “홈에서 믿음은 팬들에게 박수 받는 경기를 할 것이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민근기자

평창올림픽 입장권 평균 14만원

최저 2만원에서 최대 90만원...117만매 발행 예정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가 올림픽 입장권 가격을 확정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사무소에서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동계올림픽과 국내 메가 이벤트 등을 참고하고 종목별 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국내와 해외의 8개국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IOC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평균가격은 약 14만원이다. 2010밴쿠버올림픽과 비슷하고 2014소치올림픽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최저 2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이다.

하지만 경기입장권의 50% 가량을 8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판매 수입은 약 174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입장권은 개·폐회식과 각 종목별 경기에서 모두 117만매가 발행될 예정이다

다. 이 중 70%가 국내에서, 30%가 해외에서 판매된다.

개회식과 폐회식의 입장권 가격은 최소 22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다. 이 또한 소치 대회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국내 최고 인기종목인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의 입장권은 15만원부터다. 대신 봅슬레이와 스키레톤 등 슬라이딩 종목은 2만원부터 관람할 수 있다.

할인정책도 실시한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경로자, 청소년 등은 50% 할인된 가격에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입장권 판매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국내는 조직위 공식 홈페이지, 해외는 국가별 공식 판매대행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조직위는 내년 9월부터 국내 구매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실시간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11월부터는 공항, 기차역, 티켓센터, 아울렛 등 다양한 장구를 이용해 판매를 본격화한다.

여형주 조직위 사무총장은 “평창 대회는 서울올림픽 이후 국내에서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이자 최초의 동계올림픽”이라며 “조직위는 정부, 강원도와 함께 국민이 함께하는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장권과 연계해 2018년 평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평창패럴림픽 입장권 가격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과 협의를 내년 초 확정될 예정이다.

평창올림픽은 2018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 일대에서 열린다.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6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조직위는 대회 기간 중 약 200만명이 대회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전북도연합회장기시·군대항 생활체육 축구대회 성료

제26회 전북도연합회장기시·군대항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에 걸쳐 고창공설운동장의 4개 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북도축구연합회(회장 유창희)와 고창군축구연합회(회장 전지호)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대표 선수단 및 임원 1500여명이 참가했다.

여성을 포함해 30대에서 70대까지 세대별 경기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 48개팀이 참가해 평소 같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대회 결과 30대에서 군산(진포), 40대에서 군산 50대에서 전주, 60대에서 전주, 70대에서 군산 여성부에서 완주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우승팀에게는 대통령기전국축구대회 출전권이 주어졌다.

김상호 부군수는 “정당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고창에서 전라북도 축구인들의 축제가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시·군 동호인 간에 사랑과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북도-체육회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서

전라북도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도체육회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선수 출신의 생활체육전문강사 4명을 섭외해 일주일에 2회 이상 시행하고 있다.

수업종목 역시 축구, 건강생활체조, 요가 등 배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종목들로 선정되었다.

수업이 참여하는 노송천안골 노인복지관 최복순(70)어르신은 “요즘은 이 시간만 기다려, 조금만 따라 해도 금세 땀이 나서 한 살 한 살 젊어지는 것 같다”며 매우 만족한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박선용 도체육회 지도자는 “어떤 동작과 노래를 선정해야 어르신들이 즐겁게 운동하실 수 있을까 매번 걱정스럽지만, 지도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을 떠올리면 교육 시간이 항상 즐겁고 보람차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